

모 험

1625. 우리 삶에서 가장 깊은 신비는 영혼 가장 깊은 곳에 현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잠심과 관상기도의 모험에 우리의 삶을 투신하는 것입니다. 이 모험은 우리로 하여금 정상을 정복하고 하느님께 빈 자리를 내어드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1626. 자기 비움의 모험에 뛰어 드십시오. 이는 위대한 모험입니다.

참으로 심오한 사랑의 모험이요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는 모험입니다. 순결한 사랑의 환상적인 모험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무한하신 하느님을 향해 던지는 모험입니다.

이는 자기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느님의 신성에 사로잡히도록 맡겨 드리는 것이요 그분의 영원한 불가마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627. 성덕은 평생이 걸리는 과제입니다. 인내심을 잃지 마십시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같은 인내심을 갖고 온유하게 달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 무엇에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앞으로 전진하며 할 수 있는 만큼 다 끌고 가십시오. 그대 한 목숨 부서진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갚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1628. 사랑에 투신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험에 투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험을 즐겨 찾지만 이 가장 신비스런 모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두 팔에 용감하게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맹하고 강렬한 도약은 또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대는 이 모험에 뛰어 들었습니다. 이 모험 앞에 세상은 얼마나 작아 보이고, 책들은 얼마나 빈약하며, 인간의 생각들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조금 더... 더... 더 많이...!하고 외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비..., 하느님이라 불리는 모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대 모험의 여정을 계속 하십시오, 그 거룩하신 이름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신비에 싸여계신 분께서 너무도 가까이, 가까이 다가오시어 영혼을 전율케 하고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1629. 하느님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의 모험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길은 이미 닦여 있습니다. 믿음과 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신비스런 고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는 고통, 하느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고통, 세상에 하느님을 탄생시키는 고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혼이 깊이 숨어 있을수록 하느님은 더 많이 미소 지을 것입니다. 고랑에 떨어져 사랑의 모험의 제단에서 용감하게 죽으십시오.

1630.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영혼 안에 타오르는 갈망, 부르짖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

우주인들은 저를 감탄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서 메주콩 한 알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단한 모험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모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들의 모임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알

고 있는지요?

하느님... 하느님... 참으로 알고도 모를 나의 위대하신 분! 저의 모험에 날개를 달아 주소서.

1631. 나의 자매여, 서두르십시오.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달리고 또 달리십시오. 비틀거리면서라도 달리십시오.

1632. 우리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험의 목표는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경계선을 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633. 그대는 이제 모험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험은 오래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모험의 신비는 모두 마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대의 마음을 들어 불 속으로 던지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 마십시오. 모험이니까요.

그대의 마음을 사랑의 불꽃 속에 태워버리십시오. 신비스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불이 그대가 꿈꾸는 새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덕에 견줄 수 있는 모험은 또 다시 없을 것입니다. 너무도 아름답기에 너무도 대담한 모험입니다. 너무도 결정적이고 영원한 모험입니다.

1634.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노래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얼마나 고귀한 사명입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이론으로 끝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대 노래의 모험은 광활한 우주를 가로지르는 우주인들의 모험보다 훨씬 더 중대한 모험입니다. 그들 보다 더 멀리... 훨씬 더 멀리까지 다닙니다. 이는 존재의 근본적인 차원에 까지 이르는 사랑의 모험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모험입니까!

1635. 사랑의 모험에서 용감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자신을 아끼지 마십시오.

1636. 축성된 그대의 삶으로, 빵이 되고 성체로 변화된 그대의 삶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증언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세상에 알리십시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험, 사랑의 모험에 자신의 삶을 소모하

는 것입니다.

1637. 길은 이미 나 있습니다. 모험은 이미 시작되었고 정상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산 꼭대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신비가 깃들여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대가 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 손에 맡긴 것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오. 조금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려움 없이 전진하십시오.

하느님의 대기실에는 신비스런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끔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도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638. 사랑의 모험가들에게는 비관주의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무능'이라는 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험에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특별히 무능한 이들 안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 내십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 받는 사람들입니다.

1639. 수도원은 그대가 자신의 가난함과 무능함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난과 무능함으로 더욱 강화된 수도원, 더욱 진실한 찬미, 더욱 일치된 수도원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대의 삶이

기쁨을 전하는 노래, 하늘 높이 올려 퍼지는 감미로운 사랑의 멜로디가 되길 바랍니다.

1640. 하느님은 우리의 모험이 진실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고통과 시련, 어둠의 시간 없이는 진실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는 그대 신비스런 모험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이 모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함께 가시고 우리 모두 함께 그대를 동반합니다. 그대와 호흡을 맞추어 가파른 비탈길을 기쁨과 열정을 다해 올라갑니다.

저 산 봉우리에서 완전한 정복의 신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1641.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앞으로 나갑시다. 정상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르심이 있고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대 안에는 믿음과 희망이 살아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고삐를 늦추지도 마십시오. 화살은 이미 던져졌습니다. 그대가 오르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올라 가십시오. 그대의 오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달려 있는지 그대가 알고 있다면...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르십시오.

한 눈 팔지 말고 결눈질도 하지 말고 오르십시오.

올라 가십시오!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1642. 자녀들을 위해 골고타의 모험에 이르기까지 희생하신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목숨을 건 모험에 투신하며 살고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1643. 하느님께서 그대 영혼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표면에 이르기까지 온 존재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그대를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잊으십시오. 하느님은 그대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정복하는 위대한 모험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1644.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대는 해낼 수 있고, 해내야만 합니다. 또 원합니다. 모두가 그대를 기다립니다. 저 멀리까지 올려 퍼지는 수도원의 전례가 그대를 기다립니다. 그 신비스런 노래 소리는 세상 끝까지 다다르고 하느님의 옥좌에까지 올라갑니다. 전례 시간을 충실히 지키고, 마음을 집중하여 생동감 넘치는 자세

로 그에 임하십시오. 하느님과 대화하고 절대적인 것에 맞을 내리십시오.

수고와 노력과 피곤함이 수반되는 노동이 하루 하루 그대를 기다립니다.

고요한 침묵이 그대를 기다리고, 신나고 떠들썩한 레크리에이션의 즐거움이, 평화로 가득한 생명 넘치는 일상의 기쁨이 그대를 기다립니다.

멀리 그리고 가까이 있는 형제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그대를 기다리고, 사랑의 모험이 그대를 기다립니다.

자신을 초월하여 신비스런 하느님 얼굴의 헤아릴 길 없는 신비에 다가가십시오. 사랑이 그대에게 약속했던 그곳으로.....

1645. 그대 삶의 보화로 무얼 하시겠습니까? 그대 앞에 신비로운 모험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그대 청춘의 모험을 마지막 한 점, 한 획까지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646. 가끔 그대가 생각나면 용맹하고 대담하고 혁신적이며 목숨까지 바칠 태세가 되어있는 그대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각오가 되어 있는 그대를 보고 싶습니다. 길가의 가시덤불에 찢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저의 마음에 듭니다.

1647. 하느님의 계획을 알고 그를 따르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험입니까! 내 한 평생을 바쳐야 한다 해도 말입니다, 이 지상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빛의 신비 안에서 그분 영광의 찬가가 되십시오.

1648. 아직도 정복해야 할 정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대의 삶이 그대 안에 숨어계신 하느님을 끊임없이 찾고 만나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49 용맹함과 대담함은 그리스도의 가슴에 강하게 기뻐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용사들, 순교자들, 모험가들이 나오고 산사람들과 신비의 목격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며 모든 것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1650.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풍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 안에 숨

어, 열렬한 기도의 신비스런 갑옷을 입고 사랑의 모험을 향해 용감하게 투신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그분 안에 고정되어 있으십시오.

1651. 모험! 그대는 참으로 신비스런 모험, 빛의 모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모험입니다. 그래서 대강해서는 안됩니다. 빛 자체가 계속 앞으로 나가도록 재촉합니다.

1652. 앞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십시오. 아직 정말 더 아름답고 웅대한 장관들이, 어려운 코스들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나가십시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지만 벌써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뚝 솟은 봉우리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순례의 여정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순례자여!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는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1653. 그대 모험의 여정을 사랑으로 달려가십시오. 사랑의 찬가를 부르며 창공을 향해 뛰어 오르십시오.

1654. 젊음이의 기상, 정복자의 정신, 영원히 늙지 않은 스포츠 정신을 잃지 마십시오. 이는 기쁨의 신비, 일치의 신비, 진리의 신비를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필수덕목들입니다.

1655. 오직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분에게 미쳐버린 연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분의 사람이 되는 것,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또한 그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대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대가 감행해야 할 위대한 모험, 신비스런 모험입니다.

1656. 우주 여행!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험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길에서 겪게 되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모험에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을 실망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1657. 인생은 나는 듯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정복한 것은 영원합니다. 이 얼마나 신비스런 교환입니까! 하느님과의 게임은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깁니다.

1658. 이는 강렬하고도 용감한 모험, 사랑에 빠진 모험입니다.

때때로 맥이 빠지고 숨 막힐 것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생애를 그분을 위해 바치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끔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피를 섞어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659. 그대의 삶이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것의 충만한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삶으로 옮기십시오.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리고 젊은이의 기상과 모험의 정신으로 살아 가십시오. 정상을 꿈꾸는 모험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민첩한 모험입니다.

나는 그대가 민첩하면서도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을 똑 같은 힘과 강도로 균형 있게 살아야 합니다. 알아 들었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젊은이의 열정과 기쁨으로 사십시오. 넘치는 젊음, 사랑에 빠진 젊음을 간직하십시오.

1660. 강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모험이었습니다. 그분의 삶, 그 신비스런 힘, 무한하신 사랑, 그 영혼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 영혼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화를 알아보고 충만하게 살며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모험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험에 합쳐지는 심오한 모험입니다.

1661. 영혼의 세계에서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면서 올라갑니다.

1662. 참된 날음에는 엄청난 사랑과 자기 잊음이 따릅니다.. 곧 하나님이 아닌 모든 기억과 소식들로부터 정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결점에 연연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나쳐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 평화의 영역으로 날아 오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저항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대를 이끄시고 당겨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그분을 찾으십시오..

1663. 신비스런 관상의 산을 오르십시오. 이는 구약의 그 어떤 산들보다 더 거룩하고 강렬한 산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서둘러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느님이 그대와 얘기하시려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작고 겸손하고 자유로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작고 겸손하고, 자유로워 지십시오.

1664. 정상이 그대를 기다립니다. 그 마지막 봉우리에는 하느님의 평화와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침묵과 무한한 사랑이 흐릅니다. 저 신비스런 봉우리들을 정복하기 위해 온 생애를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1665. 깎아 지른듯한 산에 주민들이 살게 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 용감한 등산가들로 그 산들을 채워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의 두 눈을 태워 버립시다.

1666. 살아있는 사랑의 산이 되십시오, 신비로운 진리의 산이 되십시오. 정상에서 정상으로, 진리에서 진리로 나가십시오. 깊은 산중에 감도는 추위와 정적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타는 산의 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불꽃 속에 타 들어 가십시오. 사랑으로 타오르는 그대의 두 눈동자로 세상에 불을 지르십시오.

1667. 산을 오르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그 정상에서 하느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꼭대기에 다다르고 싶습니다. 거기 흐르는 산의 평화와 침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로부터 세상을 한눈에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저에게 높은 곳에서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들을 질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정상에 까지 오르도록 도와주십시오.

1668. 그 분개로 오르는 길은 힘겨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분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 모든 어려움이 빛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변모합니다.

1669. 산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느님은 당신과 가까운 이들을 그 안에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따로 데려가셨다"(마태, 17,1). 거기서 하느님은 당신의 깊은 비밀들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로부터 "이는 내 아들이다"(마태, 17,5)하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670 .산을 오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단히 멋진 일입니다. 정상에 이르는 것은 용사들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하느님의 정상을 손에 넣는 것은 신비가들이 이루어 낼 과제입니다.

1671. 높은 곳을 향해 뛰어 오르고, 올라가다 죽는 것, 이 얼마나 장렬한 최후입니까!

높은 곳을 향해 오르며 죽어가십시오. 다른 이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말고 마음을 다해 도와주십시오. 피곤하고 지치고 부서질 때까지 내어 주십시오. 그대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생을 마치십시오.

1672.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정상을 정복하십시오. 정상에 오르면 우리는 우주 앞에 탄복하게 됩니다. 하느님께 사로 잡히게 됩니다.

우리 삶은 온유해지고 영원한 나라의 고요함과 그 새로운 신비의 맛을 지니게 됩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경이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1673. 갈망하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힘으로 갈망하십시오. 사랑은 모험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상을 향해 날아 오르게 합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분명한 이정표가 있는 동안에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674. 자 이제 우리는 오르막 길을 넘어 섰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고 저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면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힘내세요. 산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1675. 아이디어들을 모아 수직 기둥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독사의 휘파람 소리로 여기십시오.

우리에게는 수직적이고도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영혼은 하느님에게 까지 닿아 세상을 떨게 만듭니다.

1676. 서두르십시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달려 가십시오.

정상이 우리의 것입니다. 길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전진하십시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상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두 눈을 태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세상에 불을 질러 타오르게 합시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합시다.

1677. 산이 그대를 부릅니다. 그대를 기다립니다. 그 험준한 산에는 은밀하고 신비로우며 맛깔진 동굴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빛, 그리고 높은 이상으로 가득한 동굴이 있습니다. 그 곳에 그대의 등지를 트십시오.

1678. 높은 산은 일치의 힘이 있습니다. 이 산이 애덕의 산과 결합되면 그 일치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일치할 것입니다.

1679. 그대의 삶을 황량하고 거대한 사랑의 산으로 만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수도원 주위에 드뭇고 자유로운 산들을 창출해 낸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두를 위해 그대의 삶을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애덕과 깊은 헌신, 솔직한 겸손과 기쁨의

정신, 형제적인 도움과 관대함의 산들로 이어지는 산맥을 만들어 갑시다.

1680. 산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서둘러 그리로 올라갑시다. 가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면 재빨리 일어나 다시 시작합시다.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날아 오릅시다.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알고 있습니까?

1681. 그대의 삶을 사랑과 모험, 헌신과 관대함의 미소로 정의 내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낮추지 마십시오

1682. 올라 가십시오. 더 높이 올라가십시오. 높은 곳을 향해 대담하게 뛰어 오르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높은 곳이 그대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거기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숨이 막힐 것입니다.

1683. 그대가 산속에 피어나는 야생화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크고 작은 일을 통해 그대에게 다가 오실 때 언제나 “예”라고 응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발랄하고 용감하며 도전적인 그대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

는 것을 말해도 될까요? 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바오로처럼, 예로니모처럼 혹은 샤를르 후꼬처럼 조금은 야성적인 그대를 보고 싶습니다.

1684. 모두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들 모두 정상에 오르고 싶은 등산가들입니다. 등산길에선 모두가 서로 도와줍니다. 그대도 용감하게 올라 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대를 밟고 올라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대가 하느님까지 오르는 사다리의 역할을 해준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삶과 죽음이 수반됩니다. 철저히 자신을 내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사랑이 가장 큰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1685. 나는 정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작음에 까지 내려오시어 당신의 높으신 사랑으로 끌어 올려 주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신비들이 나를 기다리며 내 영혼 안에 높은 곳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남겨 놓습니다.

아주 작은 영혼들을 위한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당신 사랑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 그 가파른 산 봉우리들을 낮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1686. 정상은 매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매력적인 것은, 만일 우리가 거기에 도달한다면 전 인류도 함께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산 꼭대기에 영원하신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마지막 봉우리에서 산의 고요함이 들려옵니다. 높은 곳에 감도는 평화와 하느님의 침묵이 들려옵니다.

이 모든 수고 끝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 한 목숨 부서진단들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1687. 여기, 이 불꽃의 영혼,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안에서 높은 곳을 향하는 순교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높음으로 불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순교인 것입니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데에는 당연히 수고가 따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가 함께 올라간다면 그 순교는 가증될 것입니다.

1988. 저 신비로운 정상은 자유로운 의지의 힘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그 자유를 온전히 하느님께 방향 지우고 종속시키십시오. 그 누구도 정상에 오르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사랑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요구에는 늘 고통이 따릅니다. 사랑의 신비 보다 더 심오하고 용감한 것은 없습니다.

1989. 시에나의 카타리나가 높은 곳의 비밀을 알려줄 것입니다. 거기서, 그 높은 곳에 간직된 신비를 그대 스스로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교황님도, 하느님도 당신 자녀들이 높은 곳에 살기를 바라십니다..

1690. 산에 오르려면 그토록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불사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산을 정복하기 위해 무슨 수고들 못하겠습니까? 겁쟁이가 되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1691.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대가 산의 신비에 강하게 빨려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대는 산을 좋아합니까? 저의 초대 를 받아 들이겠습니까? 만일 길에서 그대를 만나, "나는 산에 갑니

다” 하면 나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나와 같이 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대가 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올라 가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불 태워 세상을 구해야 합니다.

1692. 불타는 산은 결코 단조롭지 않습니다. 생명과 사랑, 색색의 즐거움과 땀 흘리는 수고가 거기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모험을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1693. 정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느님이 기다리시니 서둘러야 합니다. 사랑이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1694. 용감하게 자신을 내어 주십시오. 관대해 지십시오. 초원을 가로 질러 눈 덮인 산으로 오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추위에 떨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용감하고 철저한 사람이 되십시오. 무한하신 분을 그대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본 받으십시오. 그분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1695. 그분께서 인도하시니 그분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분은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을 가리키십니다. 높은 산 위에 등지를 트십니다.

그대 독수리의 등지에는 언제나 따스함과 기쁨 그리고 사랑... 넘치는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나눠주는 사랑, 자신을 잊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모든 이에게 하느님이 되어주는 것 밖에 다른 것은 모르는 사랑입니다.

높이, 드높이 날아 오르십시오. 사랑이 기다립니다.

1696. 사람들이 그대를 보면 "사랑의 산을 정복 하는 일은 얼마나 즐거울까!"라고 항상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697. 위대한 포부와 희망으로 가득 찬 용명한 등산가의 삶을 꿈꾸십시오. 비관주의가 들어올 수 없는 항상 기쁨이 흐르는 삶, 지칠 줄 모르고 오르는 삶, 깎아지른 듯이 높은 산을 열정으로 바라보는 삶을 꿈꿔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손짓하며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여라. 영원한 축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네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